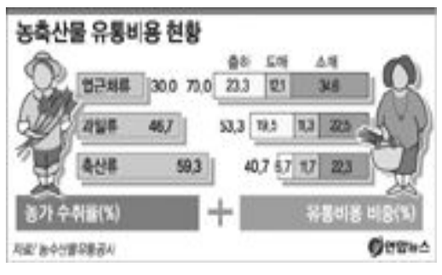
농축산물값 56%가 '유통 비용'

44원짜리 채소 → 유통단계 거쳐 100원에 팔려

"정부·지자체 등서 유통매장 설립 중간마진 줄여야"



정부가 물가 안정대책의 핵심으로 유통서조 개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농축산물의 경우 산지에서 30~60원에 불과하던 것이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각종 비용과 이윤이 쌓이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100원에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단체와 지역민들은 "농축산물의 중간 유통단계를 과감하게 축소, 생산자와 소비자들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규모 유통매장을 설립, 중간마진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2007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2개 대표 농축산물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추적, 가격형성과정을 분석한 결과 평균 농가수취(최종가격 중 농가몫) 비율은 44.1%, 이윤을 포함한 유통비용은 55.9%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100원짜리 농축산물을 샀을 때 농가에 돌아가는 돈은 44원 뿐이고, 나머지 56원은 모두 유통·판매에 관여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얘기다.

55.9%인 유통비용을 다시 성격별로 분석하면, 운송·포장·수수료 등 고정비 성격의 직접비가 17.2%, 임대료·인건비 등 간접비가 18.2%를 각각 차지하고 나머지 20.5%는 이윤이었다. 단계별로는 출하와 도매단계 유통비가 각각 15.5%, 11.4%인데 비해 소매단계에서 무려 29.0%가 집중적으로 추가됐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주부 K모(48)씨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는 MB물가를 들먹일 게 아니라, 농축산물의 중간 유통비용만 줄여줘도 장바구니 물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종류별 평균 유통비용 비중은 ▲쌀·콩·감자 등 식량작물 55.3% ▲배추·무 등 엽근채류 70.0% ▲수박·참외·토마토 등 과채류 39.7%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 61.6% ▲사과·배·포도 등 과일류 53.3% ▲장미·국화 등 화훼류 57.7%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류 40.7%로 조사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자투표 체험 하세요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북구청 민원실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체험행사를 가졌다. 북구선관위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도 실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환율 1弗=1078.90원 '시장 패닉'

3일새 29.60원 급등… 3년 9개월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째 급등하면서 1,080원에 육박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6.40원 폭등한 1,078.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관련기사 9면〉

3거래일 간 29.60원 급등하면서 2004년 11월17일 1,081.40원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2.00원 오른 1,064.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064.10원으로 밀린 뒤 달러화 수요가 대거 유입되자 1,073원 선으로 치솟았다. 이후 한동안 1,072원 선에서 공방을 벌이던 환율은 장 후반 결제수요가 몰리면서 1,079.90원까지 급등한 뒤 개입성 매물 유입으로 1,078원 선으로 하락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역내외 세력이 동반 달러화 매수에 나서면서 환율을 급등시켰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급등했지만 1,080원대 진입은 제한됐다.

/연합뉴스

▶ 1면 '최악 불황'에서

상인연합회 정범수 회장은 "비어있는 점포의 경우 수년이 지나도 임대되지 않은 반면, 빈 점포는 갈수록 늘고 있다"며 "추석 대목이라지만 경기침체에다 고유가 여파까지 겹쳐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양동시장도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감소했다.

침구류를 제작·판매하는 한 상인은 "고유가로 원단가격이 10% 올랐으나, 매출은 되레 떨어져 전기요금, 상가임대료 등 관리비용 20만원을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광주시내 백화점들도 고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추석 상품권 판매는 지난해 동기대비 20%, 예약판매율은 15%, 단체 선물수요는 25% 각각 줄어들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예년보다 추석이 열흘 정도 빠른 탓도 있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중저가 상품 위주로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등 고객들의 알뜰쇼핑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U대회 유치 재도전 촉구 잇따라

북구·광산구의회 성명서

광주지역 기초의회가 광주시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재도전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북구의회는 25일 성명에서 "U대회 유치를 통해 '문화수도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조속히 재도전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는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의원 14명의 이름으로 발표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재도전의 당위성이나 시민 공감대 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의회도 이날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10명이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지난 5월 U대회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보여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재도전에 나서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동구의회는 지난 22일, 남구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 유치 재도전을 주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나라 "상수도 민간 위탁 안한다"

전기·가스·수도·의보 4대 부문 민영화 불가 재확인

한나라당은 25일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 등 4대 부문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또 상수도 민간 위탁 방안도 논의했으나 지도부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상수도 사업의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한 수도산업 구조개편에 차질이 예상된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 "대부분이 민간 위탁도 안된다는 분위기였다"면서 "민간 위탁은 안된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는 일단 우리가 민영화는 안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라면서 "민간 위탁은 민영화하고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수도산업 구조개편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전날 언론 보도 이후 일각에서 민영화에 대한 오해가 제기되자 이같은 반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뿐 아니라 민간 위탁도 안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약속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즐겁게 해주면 어디 덧나?!

KBS 새 사장에 이병순씨 임명 제청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가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을 후임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함에 따라 이르면 26일 이 사장을 공식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KBS 이사회가 25일 이 사장을 임명제청했지만 행정안전부를 거치도록 돼 있는 임명 절차와 이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일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사회에서 임명 제청을 한 만큼 KBS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임명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KBS 이사회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장후보 4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뒤 KBS 사장 후보로 이병순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 신임 사장 후보는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를 거쳐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1년4개월여간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장 후보는 1977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창원방송총국장, 대구방송총국장, KBS미디어 사장을 거쳤으며 2005부터 KBS비즈니스 사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식약청 지자체 이관 계획 철회

윤여표 식약청장 존속 밝혀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6개 지방청의 조직과 기능을 광역 시도에 이관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5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청은 지자체와 중복 업무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대로 존속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 아래 식약청의 지방 조직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넘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나 '광우병 논란'과 잇따른 식품 사고 등으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백지화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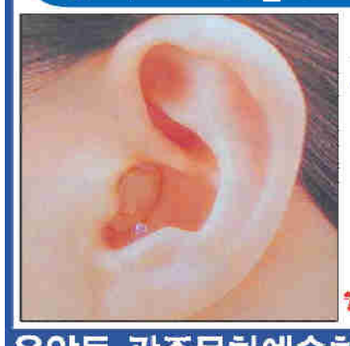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001-107-228160
◆농 협: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직통:(062)227-9600
•FAX:(062)227-9500

장흥군 공고 제2008-48호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 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기 기간중 신고된 내역이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코자 하며 또한 개장공고 이후 누락되었거나 공사중 추가 발견된 무연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399, 60-1번지
나. 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한재동산도로정비공사 부지내 분묘발생
3. 공고기간 : 2008년 8월 26일 ~ 2008년 9월 25일(1개월)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 유치 공설공원묘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6-1)
6. 신고 및 문의처 : 장흥군청 지역개발과(061-860-0520)
7. 신고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2008년 8월 26일
장 흥 군 수

산행 안내 광고는 11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유경전력(이하"갑"이라 한다)과 (주)동광(이하"을"이라 한다)은 2008년 08월 25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2항의 결의절차를 밟아 상법 제530조의9제1항의 총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8년 8월 26일
"갑" 상 호 주식회사 유경전력
소 재 지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107-1
대표이사 나 춘 희
"을" 상 호 주식회사 동광
소 재 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50
대표이사 전 경 화

◇모아보청기◇

10~30%
보청기 보상판매
무료출장상담
(청력검사)
부모님의 어두운 귀를 활짝 열어드리세요.
☎062)527-3171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고가방향)맞은편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정옥진(530313-1558919)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1400
공 고 인:최유심
한정승인수리일:2008. 7. 31
공고기간:2008. 08. 26~2008. 10. 25
연 락 처:광주시 서구 농성1동 133-8 박경철 (062-369-0770)

2008 DMZ 평화상 수상후보자 추 천 공 고
강원도와 강원일보사에서는 과거동서냉전의 이념대립으로 발생한 남북분단(DMZ)지역의 가치 및 의미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평화구현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 개인·단체등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하여 「DMZ평화상」을 시상하고자 수상후보자를 공모합니다. 평소 생활주변에서 평화운동 및 세계평화를 위해 애쓰고 많은 공적을 이룩한 도민 전 국민, 외국인 등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2일
강원도지사 · 강원일보사장
1. 수상부문 - 대 상 : 1명(상패 및 상금 1,000만원) - 교류협력 우수상 : 1명(상패 및 상금 500만원) - 학술연구 우수상 : 1명(상패 및 상금 500만원)
2. 추천대상자 ●평화운동 및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 추천방법 ●부문별 추천 가. 추천권자 : 시장·군수, 도(전국)단위 기관·단체장, NGO단체 등 나. 추천서류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자기소개서(이력서) 각 1부 (3)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다. 접 수 처 : 강원도 관광정책계, 강원일보사
4. 추천기간 ●2008. 7. 16 ~ 9. 20 (기간내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5. 수상자결정 ●평화운동 및 세계평화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 (수상자로 결정되면 개별통지)
6. 시상내역 ●상패 및 상금
7. 시상일시 ●2008년 11월초
▶문 의 처 ●강원도 관광진흥과(☎ 033-249-2782) ●강 원 일 보 사(☎ 033-258-1330)

말!말!말! 말을잘해야 성공한다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쉽,설득력 향상과정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2008년 2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❶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하는데 있음.
❷ 모집인원 : 각반 50명 선착순 대상:주부, 직장인, 일반 남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각종행사 사회진행 및 리더자로 활동할 분, 발표력이나 말을 잘하고 싶은 분
❸ 강의요일 및 시간 - 주간 (매주 화, 금요일) 14:00~16:00 - 야간 (매주 금요일) 19:00~21:00
❹ 교육기간 2008년 9월 16일~12월 29일
❺ 교육과정 대중앞에서 공포증 해소 및 여러사람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행사 사회진행 및 브리핑과 대중연설 기법,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향상 교육, 이론40% 실기 60% 교육훈련, 이미지를 높이는 말의 기술화법, 리더쉽 설득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훈련, 실습을 통한 듣기좋은 목소리 연출법, 이외에 스피치의 모든 고품질 대화법, 각종 원고작성 요령 및 연설문 낭독요령
❻ 원서교부 및 등록시간 · 등록기간 2008년 8월 4일(월)~9월 5일(금) · 등록시간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심관 4층)
❼ 등록방법 (수강료:150,000원) · 직접방문접수 또는 전화 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22-158135 (예금주:광주대 평생교육원)
❽ 수료 후 특전 - 광주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 각 기업, 학원 단체 각급학교 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강사추천 - 기별수강생 정기 친목모임
❾ 담당교수 : 한 상 택 - 한국웅변연설인 중앙회 회장 - 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대통령상 세계한국어 웅변대회 대회본부장 - 사단법인 한국웅변인 협회 광주본부 회장 - 각종 전국 웅변,스피치,연설,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 기초광역의원 및 기초광역단체장, 국회의원 후보 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지도(30년) - 한국 정치 연수원 교수
※ 저서 - 말하기 교본 - 스피치 웅변 연설 리더쉽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eb2.gwangju.ac.kr/~sce
Tel. 062)670-2167, 2168
Fax.062)670-2475/H·P 010-5692-9998